

TV 2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6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출발 모닝와이드 1~2부
50 인간극장	50 KBS 스포츠 타임	7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당신 참 예쁘다>	15 KBC 뉴스지금 40 출발 모닝와이드 3부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8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아침연속극 (미쓰아줌마)
30 KBS 뉴스	00 생활의 발견 오김도 20 아침드라마 <두근두근 달콤>	9 30 MBC 뉴스 45 기본종은 날	20 좋은 아침
00 KBS 연중기획 시청자와 함께 생명을 나눕시다(제1부)	00 여유만만	10 00 아름다운 콘서트 스페셜	40 SBS 뉴스
00 KBS 뉴스12	00 지구촌 뉴스 20 KBS특선 (신(新)복국 사람들)	11 00 MBC 뉴스 15 장애인 희망 프로젝트 <함께 사는 세상>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00 KBS 걸작선 (제행왕 김탁구(재))	10 월화드라마 <동안미녀(재)>	12 00 MBC 뉴스 05 통일전망대 45 월화드라마 <미스 리플리(재)>	00 SBS 12 뉴스 30 특집 KBC 열린토론회(재)
00 KBS 뉴스 10 KBS 연중기획 시청자와 함께 생명을 나눕시다(제2부)	00 TV 유치원 30 테마여행 길을 걷다	1 05 통일전망대 45 월화드라마 <미스 리플리(재)>	00 SBS 뉴스 10 넷트웍 현장 <고향이 보인다>
00 KBS 오늘의 경제 10 KBS네트웍 특선 갈매기도시락(부산)	00 KBS 뉴스타임 05 파워퀀텀맨(재) 35 달의 신나는 우주 여행	2 35 공간특별한 세상 스페셜 50 MBC 뉴스	10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재)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레피	00 사랑의 가족 30 희망릴레이	3 00 뽀뽀뽀 아이즈 30 싸이리 히어로	00 내친구 해치 30 한국의 술(재)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05 리빙쇼 당신의 여섯시	4 00 일일시트콤 <몽땅 내 사랑(재)>	00 SBS 뉴스 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도전! 슈퍼대디
00 KBS 뉴스 30 우리말 거꾸기	00 생생정보통	5 00 일일시트콤 <몽땅 내 사랑(재)>	00 세네포트(재) 30 생방송! KBC투데이
25 일일연속극 <우리집 여자들>	40 생방송 세계는 지금 50 위기탈출 넘버원	6 00 6시 뉴스매거진 50 생방송 전국시대	10 시시리치 떠따따따 20 일일드라마 <당신이 잠든 사이>
00 KBS 뉴스9	50 KBS 뉴스타임 55 월화드라마 <동안미녀>	7 45 일일시트콤 <몽땅 내 사랑(재)>	00 SBS 8 뉴스 25 KBC 8 뉴스 45 SBS 스포츠 뉴스 50 세계의 명산 그리고 사람들
00 가요무대	15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8 55 월화드라마 <미스 리플리>	50 TV백과사전 55 월화 미니시리즈 <내게 거짓말을 해봐>
10 KBS 뉴스라인 40 과학카페	25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TV특강	9 15 행복한 문화마을 꿈꾸리	05 밤이면 밤마다
25 KBS 뉴스 35 비바리크	09:55 레온 10:00 최고의 요리비결 <김선영의 부엌앞이 차리는 한상차림>	10 25 MBC 뉴스 24 35 스포츠 특선 <2011 코리아컵 국제요트대회>	

“악역도 좋은 경험... 발전하고 또 발전해야죠”

김태훈, MBC 아침극 '당신 참 예쁘다'서 박치영 역

배우 김태훈의 이름은 아직 낯설다. 그러나 영화팬들에게는 지난해 흥행작 '아저씨'의 터프한 형사반장으로 익숙한 얼굴이다. 김태훈은 요즘 매일 아침이면 MBC 일일극 '당신 참 예쁘다'를 통해 시청자들과 만나고 있다. 그가 연기하는 박치영은 성공과 출세만이 삶의 목표인 '나쁜 남자'다. '아저씨'에서 열혈 형사로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당신 참 예쁘다'에서 그의 모습이 낯설 수도 있다. 김태훈은 최근 인터뷰에서 "예전보다 알아보는 분들이 많아졌다. 특히 아줌마 분들이 많이 알아본다"며 씩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TV에서 보던 느낌이란 많이 다르

다고 하더라고요. 평소 차림이 남루한데 알아보는 게 신기해요. 제가 하도 '츄리닝'만 입고 다녀서 (함께 출연하는) 박근형 선생께서 날도 더운데 츄리닝 그만 입고 차라리 반바지를 입으라고 하실 정도예요.(웃음)" 일상 속 소탈한 모습의 그와 달리 그가 연기하는 치영은 냉혹한 남자다. 성공을 위해 아내를 속이고 자신의 아이를 낳은 여자까지 매몰차게 무시한다.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할수록 수렁에 빠져드는 인물이다. 김태훈은 그러나 "사람들이 봤을 때 나쁜 놈이지만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백역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는 "전형적인 악역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어느 정도 시청자들에게 전

형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해서 고민이다"라며 "자칫하다 내 연기가 애매하게 표현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러나 동시에 "이번 작품이 좋은 경험이 되고 있다. 앞으로 알맹이를 더 알차게 만들어 가야 할 거 같다"며 욕심을 보였다. 연극무대에서 활동하다 2006년 영화 '달려라 장미'로 영화계에 데뷔한 그는 지난해 '아저씨'로 얼굴을 알렸다. 그전까지 그는 영화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돌이킬 수 없는'에 출연한 배우 김태우의 동생으로 알려졌다. 김태훈은 "형이 연기에 대해 별 얘기를 안 하지만 열심히 하고 경험을 해 보면서 발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



준다"고 전했다. 일일극은 '당신 참 예쁘다'가 처음이다. 그는 "대사량이 많아 정신이 없지 않다. 긴 호흡으로 가는 드라마라 만들어 가는 재미가 있다"며 "하루에 많게는 60선을 찍을 때도 있지만 하다 보니 적응이 되는 것 같다"고 했다. <연말뉴스>

KBS1 '6·25 전사자 유가족 찾기' 23일 특별생방송

KBS는 특별생방송 '6·25 전쟁 전사자 유가족을 찾습니다'를 23일 오후 5시20분부터 1TV를 통해 100분간 방송한다. 이날 방송에서는 가족을 찾지 못

한 한국 전쟁 전사자들의 사연을 실시간으로 소개하고 생방송 전화연결을 통해 유가족 찾기에 나선다. 또한 전사자를 찾은 유가족들과 6·25 참전 유공자들, 학도병이 함께

출연해 전사자 유가족 찾기의 중요성을 알린다. 이와 함께 한국 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전투로 꼽히는 백마고지, 다부동 전투 등에 참여했던 노병들

의 회고록을 통해 6·25 전쟁의 아픔과 남은 과제를 알아보고, '유가족 찾기 전담팀' 요원들의 모습을 소개한다. KBS는 "아직도 1만8천여 명의 전사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에타게 전사자를 기다리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전한다"고 밝혔다. <연말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20일(음 5월 19일 丙午)



子



丑



寅



卯



辰



巳

36년생 대간히 불리해지니 오늘 할 일을 미루지 마라. 48년생 뒤를 한번 돌아보라. 60년생 모든 일에 신중하고 욕심을 버려라. 72년생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라. 84년생 시비에 휘말릴수 있으니 말조심 언행조심. 행운의 숫자 : 06, 29

37년생 새로운 변화로 재물이 생길 수도 있다. 49년생 전후좌우를 살펴가라. 61년생 수족의 불편이 나올 수 있고 주변이 어지럽다. 73년생 실물수는 있으나 재물이 들어온다. 85년생 아내의 건강을 살펴보라. 행운의 숫자 : 08, 33

38년생 인생은 지금부터 멋지게 행동하라. 50년생 재물과 처에 시달림이 있을 수 있다. 62년생 재산은 증식되나 아내와 대화가 필요하다. 74년생 재사가 불리하다. 행운의 숫자 : 09, 34

39년생 좋은 일과 연결된다. 51년생 주변의 변화가 손재로 돌아오니 신중하게 처신하라. 63년생 직업과 돈, 남편, 자녀들까지도 조심해야 한다. 75년생 직장에서 새로운 일로 인정받고 가정의 평안이 있다. 행운의 숫자 : 11, 40

40년생 순화기가 발달하면 망신수가 발생한다. 52년생 협조자가 나타나지만 조심하라. 64년생 흥보다 길이 더 많다. 76년생 흥분은 금물이니 생각하고 행하라. 행운의 숫자 : 12, 36

41년생 힘껏 달려보면 결과가 좋으리라. 53년생 건강을 위한 꾸준한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라. 65년생 기상천외한 황재수가 있다. 77년생 누명, 구설 등으로 불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9, 33



午



未



申



酉



戌



亥

42년생 귀인을 만나서 도움을 받는다. 54년생 나에게 불편한 일을 내 탓으로 생각하면 만사가 편안하다. 66년생 돌발사태에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 78년생 부부사이에 예의를 지키면 사랑은 배가 된다. 행운의 숫자 : 03, 25

43년생 배우자 덕이 없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55년생 형제의 도움으로 새 생활이 시작 된다. 67년생 부모에게 효도도 중요하나 자식교육은 미래다. 79년생 시비, 도난, 분실이 발생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05, 38

44년생 새로운 인생을 설계 할 때다. 56년생 새로운 일을 계획 하나 쉽지않은 않다. 68년생 소탐대실,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취하라. 80년생 슬픔도 기쁨도 한꺼번에 나타난다. 행운의 숫자 : 07, 30

45년생 아랫사람과 금전거래는 가능한 피하라. 57년생 애인과 즐거움은 있으나 마무리가 서운하다. 69년생 어부지기가 있지 만 결과는 좋지는 않다. 81년생 이성을 만나보라. 좋은 진행이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14, 36

46년생 일일일묵이나 작은 것을 얻고 큰 것을 잃는다. 58년생 자기자랑보다 동료를 칭찬하라. 70년생 작은 일도 꼭 성공하겠다는 각오로 추진하라. 82년생 제일 편한 사람이 제일 소중한 사람이다. 행운의 숫자 : 17, 40

47년생 지출도 투자로 생각하라. 59년생 큰 것을 취하고 작은 것은 내어주라. 71년생 가족과 떨어져 살 일이 생길 수도 있다. 83년생 공짜 술에 병이 나니 곁에도 가지마라. 행운의 숫자 : 21, 37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우리말 나들이	굿모닝 잉글리쉬	니하오 풍구워	오하오우 니혼고
<p><b>‘바람’인지 ‘바람’인지?</b></p> <p>“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잊기엔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람 수는 없지만 영원을 태우리.”</p> <p>가수 노사연의 '만남' 노래 중 일부이다. 많은 사람이 부르는 이 노래에서 처음에는 '바람'으로 발음하고 두 번째는 '바람 수'로 발음하는 오류를 종종 일으키는데, '바람'은 '생각이나 바람대로 어떤 일이나 상태가 이루어지거나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생각하다'의 뜻이므로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다."라고 불러야 옳은 표현이다. '바라다'는 '별이나 습기를 받아 색이 변하다'의 뜻으로 "저고리 색이 바래서 못 입겠다." "얼마나 세월이 흘렀는지 종이아 누렇게 바래 있었다." 등에 쓰인다.</p>	<p><b>Why not check out the newspaper?</b></p> <p>신문에서 확인해 보세요</p> <p>A : Hmm, what should we do this weekend? B : How about a movie? We haven't done that for a while. A : A movie, sure. Do you know what's on right now? B : No. Why don't you check out the newspaper? A : Okay. Maybe you should invite your sister along, too.</p> <p>A : 음, 이번 주말 무엇을 하면서 보낼까? B : 영화는 어때요? 한동안 영화 못 봤잖아요. A : 영화, 좋지. 지금 무얼 상영하는데? B : 몰라요, 신문에서 확인해 보세요. A : 알았어, 자네 여동생도 초대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p> <p>* 신문에서 확인해 보세요. = Why not check out the newspaper? = Maybe you should check out the newspaper? = Could you check out the newspaper?</p>	<p><b>十三点 shí sān diǎn</b></p> <p>‘13시’가 중국에서는 육이다</p> <p>‘点’은 우리의 ‘점 (點)’의 간체자로 중국어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13시’은 한 시가 아니고 잘못된 시간을 가리킵니다. 요즘은 종을 치는 시계는 잘 안 보이는데 예전 제가 어렸을 적엔 집집마다 종을 치는 벽시계가 있었지요. 지금도 시골집에 가면 그 시계가 있습니다. 태음으로 음적이는 것으로 추가 왔다 갔다 하면서 오랜 세월 그 자리에 변함없이 걸려있죠. 아마 저와도 나이가 비슷할걸요.</p> <p>시계는 종을 한 번에서부터 열두 번까지 치는데, 느닷없이 열세 번을 친다면 고장난거죠. 그래서 좀 멀어진(또는 덜 멀어진) 사람에게 쓰는 표현이 바로 “13시”입니다. 痴 - ‘머리색을 치’자입니다. 총 획수가 13획입니다. 여기서도 ‘13시’와 연관짓고, ‘B拆开 chāi kāi’-‘B를 찢어발려’라고 말해서 ‘13시’로도 연관 짓습니다.</p>	<p><b>百聞は一見にしかず。</b></p> <p>백문이 불여일견이야</p> <p>A : 僕の言っていることが分かるの。 B : 何回聞いてもピンとこないよ。 A : 現場へ行ってみた方がいいんじゃない。 B : 百聞は一見にしかずだから、そうしよう。</p> <p>A : 내가 말하는 것이 이해 돼. B : 몇 번이나 들었지만 딱 오지 않네요. A : 현장에 가보는 편이 좋겠어요. B :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그렇게 하자.</p> <p>[단어정리] 現場 현장 百聞 백번 들음 ピント来る 딱 오지 않다 ~たほうがいい ~한 편이 좋다.</p>
<p>&lt;전남언어문화교육 연구회&gt;</p>	<p>&lt;동아 외국어학원 제공&gt; www.donga.tv ☎ 222-6253</p>	<p>&lt;리틀차이나 중국어 전문학원&gt; www.littlechina.co.kr ☎ 233-9582</p>	<p>&lt;이스카 일본어 전문학원 제공&gt; http://www.kjasuka.co.kr ☎ 232-1503</p>